

동서간호학 연구지 게재논문 분석을 통한 양한방 연구 동향 탐구

김현지¹ · 이한나¹ · 오현수¹ · 양유정¹ · 신성희²

¹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박사과정, 동서간호학 연구소 연구원, ²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

Trend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Kim, Hyun Ji¹ · Lee, Hanna¹ · Oh, Hyun Su¹ · Yang, Yu Jeong¹ · Shin, Sung Hee²

¹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and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Seoul;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JEWNR) to identify the current research status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and recomme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Using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104 articles published in JEWNR between 2009 and 2013 were reviewed. **Results:** 86.5% of the studies were quantitative, qualitative 3.85% and methodological research 9.61%. The majority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was survey, 34.4% used experimental design. 62.5% of the experimental intervention was derived from Western nursing concept and 31.31% was from Eastern nursing concept. 40.6% of the research indicated that they have obtained verbal consent and 53.1% had written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The data collection settings were hospital (46.9%), school (26.0%) and community (25.0%). **Conclusion:** Both the number and quality of the published articles in the JEWNR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08. Varied research methodologies and data analysis methods were utilized.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trengthening peer review adhering to review guidelines will improve the quality of articles and promote the reputation of JEWNR as an international journal.

Key Words: Nursing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연구는 간호학문의 이론적 지식체를 발전시키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연구를 통해 정립된 지식은 학문의 이론적 기틀을 공고히 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간호교육과 실무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간호연구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틀 마련이나 그 발전을 위한 학회의 설립, 연구의 활성화와 배포를 위한 학회지의 발간 등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간호 학술지의 게재논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간호학의 이론적 지식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로부터 더욱 체계화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며, 실무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간호과학회지를 비롯하여 정신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등 여러 간호학술지에서 자체평가를 꾸준히 이어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동서간호학연구지는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로 1997년부터 8년간 년 1회 발간되었다. 2004년부터 2회로 발행횟수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 동서간호학 연구지는 한방간호에 대한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한방간호학문을 정립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등재지로 선정되기 위해 본 연구지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먼저,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회 회원 수 및 연구 인력의 증가, 연구지 게재 횟수 및 게재 논문 수의 증가 등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논문분석, 간호연구, 동서간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anna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2hanno@hanmail.net

투고일(date received): 2014년 10월 2일 심사완료일(data of review completion): 2014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date accepted): 2014년 11월 17일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술단체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양한방 간호'라는 주제의 학문적 공유를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과 함께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증가와 편집위원의 전문성 구축, 연구윤리 강화 등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는 학술지 등재기준의 정성평가와 맥락을 같이하며, 본 학회지의 등재지로의 선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Shin 등 (2008)이 창간호부터 2008년도까지 동서양 간호의 비교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연구지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 동서간호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게재 논문들의 체계적인 고찰을 통한 양적, 질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동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게재된 논문의 연구영역 및 방법에 대해 최근까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양한방 간호 학문의 발전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고 활성화 시키며, 연구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양한방 간호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서간호학연구지의 발전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09년 15권 1호 이후부터 2013년 19권 2호까지 최근 5년간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고, 향후 동서간호학연구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한다.
- 2)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을 확인한다.
- 3)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영역을 확인한다.
- 4)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이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10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분석틀에 맞지 않는 9편의 논문을 제외한 96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에서 제외된 논문은 국내 간호연구의 분석이나 측정도구 탐색의 방법

론적 연구이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객관화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은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연구방법, 연구영역, 주요어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에는 연도별 게재논문 수, 심사기간, 연구자 및 논문종류가 포함된다. 연구방법은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수집기간, 윤리적 고려,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 크기, 연구도구, 이론적기틀 유무, 자료분석방법의 항목으로 나뉜다.

연구영역은 연구개념, 연구주제, 연구환경에 대해 세분화하여 질적, 양적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어에 대한 분석은 논문에 제시된 주요어와 MeSH의 일치정도를 살펴보고, 동서양 간호의 개념으로 나누어 서양간호는 4가지 메타파라다임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동양간호는 Lee, Cho, Kang과 Shin (2003)의 연구에 따라 기, 한방간호, 보완대체요법, 양생, 질병의 한방적 관리, 전통적 건강관리의 6가지로 각각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도구는 모두 4가지 영역의 총 37개의 세부분항의 분석조사도구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논문분석에 앞서 연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구도구가 되는 분석틀을 결정하였다. 이후, 2주 동안 4인의 연구자가 합의된 객관적인 분석틀에 따라 전체 논문을 나누어 검토하고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과정 도중의 의문점은 연구자들의 협의를 거쳐 분석되었다. 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호별로 논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분석자를 명시함으로써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 후 분석된 각 자료를 모아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추출하여 분석 자료와 논문을 대조하여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연도별 게재 논문 수, 심사시간, 연구자 수, 논문종류로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게재 논문 수 및 심사기간

해당기간 중 동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2009년 19편, 2010

년 23편, 2011년 22편, 2012년 17편, 2013년 24편으로 총 105편이었다. 심사기간의 경우 투고일로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소요일수는 9일에서 405일까지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 소요일수는 72일이었다. 그 중 2011년도의 경우 평균 소요일수가 111일로 가장 긴 편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22일로 소요일수가 가장 짧았다. 심사완료일부터 게재 확정일까지는 0일에서 71일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 소요일수는 6일이었다.

2) 연구자 수 및 논문 종류

논문 한편 당 연구자의 수는 단독연구에서부터 최대 9명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구자수는 2.55명이었다. 단독연구에서부터 저자가 3명까지인 비율이 전체에서 83.3%였으며, 그 중에서도 저자가 2명이었던 논문이 62.5% (38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종류는 일반논문과 연구비 수혜논문, 학위논문으로 구분할 때, 일반논문이 67.7% (65편), 연구비 수혜논문이 25.0%(24편), 학위논문이 7.3% (7편)이었다.

2. 연구방법

논문의 연구방법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수집기간, 윤리적 고려,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크기, 연구도구, 이론적 기틀 유무 및 자료 분석방법으로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1) 연구설계

연구설계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양적연구가 95.8% (91편)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연구가 3.1% (3편), 그 외 주관성 연구가 2.1% (2편)이었다. 양적연구 중 조사연구가 35.4% (34편)로 가장 많았고, 유사실험연구가 30.2% (29편)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 인과관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연구나 상관관계연구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방법 및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시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연구 8.3% (8편), 인과관계 연구 17.7% (17편), 원시실험연구 2.1% (2편)이었다. 질적연구는 3편 모두가 현상학적 연구로 분류되었다.

2)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를 연령대로 나누어 본 결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성인(20-40세)으로 전체 대상의 42.9%를 차지하였으며 중년(41-64세)이 27.9%, 노년(65세 이상)이 22.0%로 나타났다. 영유아(0-7세)는 0.7%, 학령기(8-13세)는 2.0%, 청소년(14-19세)은 4.5%의 비율이었다. 성인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포함시킨 경우도

Table 1. Research Methodology (n = 96)

Variables	Categories	n	%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91	95.8
	Qualitative research	3	3.1
	Other	2	2.1
Research participants	Pre school age	1	0.7
	School ages	3	2.0
	Adolescents	7	4.5
	Adults	66	42.9
	Middle ages	43	27.9
	Elderly ages	34	22.0
	Subtotal	154	100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	85	69.2
	Physiologic measure	15	12.1
	Observation	5	4.0
	Self-report	7	5.7
	Interview	6	4.9
	Q-methodology	1	1.6
	Other	3	2.5
	Subtotal	123	100
Ethical consideration	Oral consent	38	39.6
	Written consent	52	54.2
	Not report	6	6.2
Sampling method	Probability sampling	95	99.0
	Non-probability sampling	1	1.0
Reliability instrument	Yes	73	76.0
	No	21	21.9
	Not applicable	2	2.1
Validity instrument	Yes	13	13.5
	No	79	82.3
	Not applicable	4	4.2
Data analysis	SPSS	87	90.6
	SAS	3	3.1
	Other	6	6.3

있어 산출된 도수는 중복을 고려하여 모두 154였다. 연구대상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38.3% (36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6.6% (25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1.3% (20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3.8% (13편)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방법에서는 질문지법이 69.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리적 측정법은 21.8%로 그 중 직접 측정법이 12.1%, 관찰법이 4.0%, 자가보고법이 5.7%였다. 그 외 면접법이 4.9%, Q방법론 1.6%, 기타 2.5%였으며 기타에서는 간호기록지에서 자료를 추출하거나 전화면접이 사용되었다. 자료수집방법도 한 논문에 질문지법과 생리적 측정법을 모두 사용한 경우 등이 있어 산출된 도수는 모두 123이었다. 자료수집기간과 게재일과의 기간 차이는 1개월에서 5년으로, 그 평균은 18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에서 “동의를 얻었다”거나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기

술되었으나 서면동의인지 구두동의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논문은 구두동의로 간주하여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구두동의가 39.6% (38편), 서면동의가 54.2% (52편)으로 나타났으며,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논문은 6.2% (6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중 IRB를 받고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17.7% (17편)이었으며, 2009년에 11.8% (2편), 2010년에 10.0% (2편)로 많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22.7% (5편), 2012년에는 13.3% (2편), 2013년에는 31.8% (7편)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5) 표본추출방법 및 표본크기

표본추출방법은 간호기록에서 간호진단 추출을 했던 논문 1편을 제외하고 99.0% (95편)의 논문에서 편의추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크기에 대하여 그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총 50.0% (48편)였으며,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도의 경우 23.5% (4편), 2010년 25.0% (5편)이었지만 이후 그 수가 증가하여 2011년 59.0% (13편), 2012년 66.7% (10편), 2013년 68.2% (15편)이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49.0% (47편)이었다.

6)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분석하였는데, 연구도구의 신뢰도에 대하여 기술한 논문은 76% (73편)이었다. 24.0% (23편)의 논문에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VAS척도를 사용하거나, 생리적 측정치, 단일항목 측정도구 등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신뢰도를 언급하지 않은 논문은 2.1% (2편)이었다. 타당도의 경우 13편인 13.5%의 논문에서 도구의 타당도에 대하여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론적 기틀 유무

이론적 기틀의 경우 거의 모든 연구논문에서 기술되지 않았으며 그 비율은 96.9% (93편)으로 나타났다.

8)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거의 대부분에서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SPSS만을 이용한 경우 90.6% (87편)였고, SPSS와 Stata를 함께 이용한 경우가 1.0% (1편), SAS는 3.1% (3편), 기타 5.2% (5편)이었다. 기타로는 분석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고 밝힌 논문이 1.0% (1편), Q방법론 연구 2.1% (2편), 질적연구가 2.1% (2편)이었다.

3. 연구영역

연구영역을 연구개념, 연구주제, 연구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Table 2. Research Domain (n = 96)

Variables	Categories	n	%	
Research concept	Physiologic	17	17.7	
	Psychosocial	57	59.4	
	Both	21	21.9	
Research Subject	Nursing management	21	21.9	
	Nursing education	14	14.6	
	Nursing service	1 st prevention	37	38.5
		2 nd prevention	5	5.2
3 rd prevention		19	19.8	
Research Environment	Hospital	45	46.9	
	Educational institution	25	26.1	
	Community	24	25.0	
	Home	1	1.0	
	Other	1	1.0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1) 연구개념

간호기록을 바탕으로 간호문제에 대한 개념을 다룬 1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신체적 불편감이나 통증과 관련된 생리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한 논문은 17.7% (17편), 스트레스나 우울, 지식 등 사회심리적 영역에 대한 연구는 59.4% (57편)였다. 반면에 통증과 불안을 함께 본 연구와 같이 생리적인 부분 및 사회심리적인 부분을 모두 함께 다룬 연구는 21.9% (21편)이었다.

2) 연구주제

분석한 96편의 논문의 연구주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관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교육, 환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졌다. 간호관리에 관련된 연구는 21.9% (21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14.6% (14편), 나머지 65편의 논문은 환자, 지역사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간호제공에 따라 1차 예방 38.5% (37편), 2차 예방 5.2% (5편), 3차 예방 19.8% (19편)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 중 간호중재는 적용한 연구는 32.3% (31편)로 나타났다 (Table 3). 간호중재 연구에는 단전호흡이나 내관지압과 같은 한방간호중재를 시행한 경우가 22.8% (7편), 양방간호중재를 이용한 경우는 70.8% (22편)로 나타났다. 그 중 교육적 중재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5편, 운동방법을 이용한 경우는 1편, 웃음요법 등 요법을 이용한 것은 7편, 그 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이용한 경우가 7편, 기타 2편으로 나타났다. 양, 한방 중재를 모두 이용한 경우는 6.4% (2편)로 나타났다.

3) 연구환경

연구가 진행된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학교, 병원, 지역사회 기관, 가

Table 3. Intervention & Study population

(n = 31)

Domain	Intervention (n)	Study population
Eastern nursing intervention	Nei-guan acupressure (3)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Lung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Geriatric patient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Dan Jeon breathing (1) Auriculotherapy (1) Oriental herbal tea (1) Meridian massage (1)	Middle-aged women Elderly with sleep disorders Elders at health facility Bell's palsy patients
Western nursing intervention	Education (5)	Inpatients for endoscopic examination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s Postoperative patients Breast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Exercise (1) Therapy (7)	Medication in psychiatric inpatients Elderly women Institutionalized elderly Hospice patients Nurse shift workers
	Providing with information using leaflet (1)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 (1) Patient controlled analgesia(PCA) education (1) Individual education (1)	Patients with post mastectomy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Patients taking thoracentesis Spinal anesthesia surgery patients Adolescent smokers
	Education program by illness (1) Aquatic exercise program (1) Aroma therapy (3)	Elderly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college students Mothers of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Middle-aged women Chronic mentally disabled
	Laughter therapy (2) Music therapy (1) Relaxation therapy (1) Smoking cessations health camp (1) Neurofeedback training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1)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s (1) Internet social support program (1)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1)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1)	Nursing student Preterm infant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dults
Others (2)	Problem based learning (1) Kangaroo care (1)	Women with lower back pain
Western & extern nursing intervention	Combination (2)	Combination program of meridian massage and foot reflexology (1) Hand acupressure and lumbar strengthening exercise (1)

정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병원 46.9% (45편), 학교 26.1% (25편), 지역사회 기관 25.0% (24편), 가정 1.0% (1편), 지역사회와 가정을 함께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 (1편) 이었다.

4. 주요어

주요어는 양방 관련 개념 325개, 한방 관련 개념 19개로 모두 344개로 나타났다. 양방간호와 관련된 주요어를 간호학의 네 가지 메타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네 가지 메타패러다임에 해당되지 않는 주요어는 기타로 분류하였다(Table 4). 양방관련 주요어는 건강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57.5% (187개)로 나타났다.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행복(Happiness) 등의 정신건강 관련개념과 통증(Pain), 구토(Vomiting) 등의 신체건강 관련개념, 그리고 폐암(Lung cancer), 뇌성마비(Cerebral palsy) 등의 질병 관련개념의 주요어로 나타났다. 간호영역은 20.0% (65개)로 교육(Education), 치료

(Therapy) 등 간호중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간호(Nursing)와 같은 직접적인 간호를 나타내는 주요어도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인간 영역에서는 18.2% (59개)로 노인(Elderly), 아동(Children) 등과 같이 연령을 나타내는 것과 간호(Nurse), 학생(Student) 등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용되었다. 환경영역은 3.4% (11개)로 직장(Workplace), 병원(Hospitals) 등이었으며, 기타영역은 0.90% (3개)였다. 기타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 Q방법론(Q methodology), 현상학적 방법(Phenomenological method)로 연구 방법과 관련된 주요어 등으로 간호의 네 가지 패러다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방 관련 주요어는 거의 대부분이 간호중재로 기존의 간호학의 4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하면 그 내용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방간호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Lee (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 한방간호, 보완/대체요법, 양생, 질병의 한방학적 관리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Table 5). 한방간호와 관련되어 사용된

Table 4. Classification of Keyword Related to Western Nursing

(n = 325)

	n (%)	Key word
Human-being domain	59 (18.2)	Adolescent (2), Aged (5), Children (3), Chronic patient, Clinical nurses,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Elderly (5), Elderly women, Elders, Elementary school students, Hospice volunteer, Liver donor, Middle aged, Middle aged adults, Middle aged women, Neonate, Nurse (4), Nurses (6), Nursing student (4), Nursing students (3), Parent, Patients, Pregnant women, Preterm infant, Psychiatric inpatient, Somatotype, Students (4), Teenagers, Universities, Women (3)
Health domain	187 (57.5)	Addiction, ADL, Aggression, Anger, Anorexia (2), Anxiety (5), Attachment, Attitude (3), Awareness, Back pain, Bell's palsy, Blood, Body composition, Body image, Brain waves (2), Burden, Burnout, Carbon monoxide, Cause, Cerebral palsy, Chronic disease, Climacteric, Cognition (3), Cognitive, Commitment, Communication, Conflict, Constipation, Constitution, Crisis, Death, Depression (10), Dietary habit, Disorders of excessive somnolence, Drinking, Ego distribution, Ego strength, Emotional intelligence, Expectancy, Experience, Expression, Facial paralysis, Fatigue, Flexibility, Happiness (2), Health (3), Health behavior, Health perception, Health status, Identity, Impulse, Influencing factor, Interpersonal relatio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b satisfaction (5), Job stress (2), Knowledge (5), Life satisfaction, Lifestyle, Loneliness (2), Lung cancer, Migraine, Nausea (3), Needle stick injuries, Nicotine dependence, NK cell, Obesity (2), Object attach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Osteoporosis, Overload, Overweight (4), Pain (4), Parenting, Perception (4), Performance, Personal satisfaction (2), Physical activity (2), Physical endurance, Physiological marker, Power, Powerlessness, Practice (2), Practice experience, Pregnancy, Professional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Quality of life (4), Recovery, Reflexology, Risk factors (2), Runaway behavior,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life, Self efficacy (2), Self esteem, Self-care (2), Self-concept, Self-control, Self-efficacy (5), Self-esteem (2), Sleep (2), Sleep disorders, Smoking (3), Smoking cessations, Social support (4), Spiritual well being, Stress (9), Stroke (2), Suicide, Turnover, Type1 diabetes, View about old age, Vomiting (3), Weight loss, Well-being
Nursing domain	65 (20.0)	Aroma therapy (3), Asepsis, Blended learn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 Chemotherapy, Day care, Dental hygiene, DNR (do-not-resuscitate), Education, Endoscopy, Exercise, Health facility, Health point system, Health promotion behavior, Hemodialysis (2), Hospice (2), Humor, Individual education, Information,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Kangaroo care, Kidney transplantation,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Laughter therapy, Lumbar strengthening exercise, Massage, Mastectomy, Multiculturalism, Music therapy, Neurofeedback, Nursing (4), Nursing diagnosis, Nursing intervention by telephone, Nursing practice,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2), Patient education, Pediatric nursing, Physical fitness, Problem-based learning, Relaxation therapy, Safety care, Self-care knowledge & performance, Simulation, Skill, Smoking cessation clinics, Spinal anesthesia, Surgery, Telephone consultation, Telephone inquiries, Temporary migration, The internet social support program,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Transcultural nursing, University health services, Validation studies
Environment domain	11 (3.4)	Cell phone, Clinical trials, Documentation, Family, Family function, Hospitals, Institutionaliz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Nurse's image, safety culture, Workplace
Other	3 (0.9)	Teaching hospital, Q methodology, Phenomenological method

Table 5. Classification of Keyword Related to Eastern Nursing (n = 19)

	n (%)	Key word
Gi	0 (0)	
Oriental nursing	2 (10.5)	Korean tradition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11 (57.9)	Alternative medicine, Meridian massage, Seogeum therapy,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Complementary therapies, Auriculotherapy, Breathing exercise, Meditation, Nei-guan acupressure (2)
Yang-saeng	4 (21.1)	health promotion (3) Oriental herbal tea
Oriental management of disease	2 (10.5)	Acupressure (P6), Hand acupressure

주요어를 살펴보면, 내관지압(Nei-Guan acupressure)과 같이 고유의 이름으로 주요어가 사용되는 것도 있었던 반면, '양생'은 Health promotion으로, '단전호흡'은 Breathing exercise으로 표기되어 일부에서 양방관련 주요어와 구분되지 못하고 있었다.

위 영역별 주요어를 종합하여 5회 이상 사용된 주요어를 빈도에

따라 정리해 보면 Depression (10), Nurses (10), Stress (9), Elderly (7), Nursing student (7), Aged (5), Anxiety (5), Job satisfaction (5), Knowledge (5), Self efficacy (5), Smoking (5)의 11개였다.

또한 각 주요어를 Pubmed의 MeSH와 비교하여 일치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사용된 키워드 중 62.8% (216개)의 키워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복수 단어나 순서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키워드는 20.6% (71개), 일치하지 않는 키워드는 16.6% (57개)였다. 완전 일치하는 키워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7.7%, 2010년 68.1%, 2011년 66.3%, 2012년 64.9%, 2013년 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최근 5년간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총 논문 편수는 105편으로 연 평균 21편, 각 호당 평균 10.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는 Shin 등(2008)이 동서간호연구지의 창간호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실린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133편(연 평균 11편)이었던 것과 비교

하여 보면 양적으로 많은 수가 증가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간호학과 내 한방간호 교과과정의 개설이 늘어나고(Moon, Shin, & Yang, 2000)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과, 동서양 간호의 융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 목적을 서두로 내세우는 본 연구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된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공신력 있는 동서간호학연구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제시해 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수는 2인 연구가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대 9명까지의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공조하는 연구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비 지원 논문이 25.0% (24편)으로 기본간호학회지의 연구비 수혜논문 30.0% (Sohng et al., 2008)와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초기 12년간의 동서간호학연구지(Shin et al., 2008)의 연구비 수혜논문이 10.5% (14편)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동서간호학연구지의 질적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연구방법에서는 실험연구가 전체의 32.3% (31편)으로 이는 기본간호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Sohng et al., 2008)에서 실험연구가 23.7%로 나타난 것 보다 높고, 초기 12년간의 동서간호학연구지의 실험연구가 22.6%이었던 것과(Shin et al., 2008) 비교하여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내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연구 31편 중 순수 실험 연구 설계는 없었는데, 이는 간호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험적 조작이 어렵고 연구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무작위화하기 어렵다는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 실험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겠으나(Yee, Park, Cho, & Park, 2011), 향후 순수 실험설계를 늘림으로써 간호학 연구가 생산하는 연구 결과의 영향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에서 연구가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의 포괄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특히 73.4%인 69편이 대학생, 간호사, 성인 등 건강한 일반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의 건강요구와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뿐 아니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간호학계의 최근 경향과 맞물린 추세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료수집방법에서 생리적 측정법이 21.8%로, 앞서 동서간호학연구지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Shin et al., 2008)의 15.0%로 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연구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실험연구에서 질문지를 통한 변수의 측정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인 생리적인 측정을 통해 간호중재의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자료수집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보고한 연구는 76.0% (73편)인 반면 타당도를 보고한 연구는 13.5% (13편)뿐이었다. 이는 아동간호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1)에서 신뢰도에 대한 제시가 83.1%였던 결과와 유사한 비율이나, 타당도에 대한 부분은 41.3%이었던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이다. 하지만 과거 동서간호학연구지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Shin et al., 2008)에서 신뢰도 56.4%, 타당도 5.3%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윤리에 대한 고려를 분석한 결과 구두동의 39.8% (38편), 서면동의 54.2% (52편)이었으며, IRB 승인은 전체에서 17.7% (17편)으로 기존의 동서간호학연구지의 게재논문분석(Shin et al., 2008)에서 한편도 보고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그 숫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2011년 22.7%, 2013년 31.8%로 IRB 승인을 받는 연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구와 관련되어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IRB 승인을 받은 연구만이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하는 투고규정의 변화는 많은 학회지에서 IRB 승인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본 연구지에서도 논문평가 기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IRB에 대한 절차를 정착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본 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50.0% (48편)이었다. 이는 한국간호과학학회지의 최근 2년간 논문을 분석한 연구(Shin et al., 2008)의 49.7% 와 유사한 결과이며, 초기 12년간의 동서간호학연구지의 분석 결과 3.5%이었던 것에(Shin et al., 2008) 비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간호학연구지에서 과학연구 방법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해내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것은 전체의 3.1%에 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한간호학회지의 최근 3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의 분석 결과인 11.8% (Suh et al., 2007), 성인간호학회지 8.1% (Park, Lee, Kim, & Cho, 2008) 보다 낮은 결과이며, 앞서 동서간호학연구지의 결과 5.3%이었던 것과(Shin et al., 2008) 비교하여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경우 페이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론적 기틀이나 문헌고찰에 대한 부분을 논의에 충분히 기술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연구를 통한 과학적 지식체의 축적과 확장을 위해서는 연구수행에서 이론적 기틀이 필요하며(Polit & Hungler, 1987), 이를 위해서는 논의에 포함된 이론적 기틀에 대한 내용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관심영역을 분석한 결과 심리, 사회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개념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건강 간호학회지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개념의 영역을 측정했을 때 사회심리적 건강 개념의 주요어(52.2%) 생리적 건강 개념의 주요어(13.2%)보다 많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Kim et al., 2010), 간호의 관심영역이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지지하는 데 더 비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한 96편의 논문의 연구주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관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교육, 환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 간호관리와 간호교육에 관련된 논문은 총 36.5% (35편)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본간호학회지의 게재 논문(Kim et al., 2012)을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간호교육의 비중이 연구주제의 비율 중 두 번째(15.4%)로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간호행정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Jang, Kim, Kim, Kim, & Jeong, 2013) '간호교육'의 주요어가 최근 증가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의 관리와 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지에 게재된 간호중재 논문 중 한방 간호중재를 이용한 경우는 7편(21.9%), 양방 간호중재를 이용한 경우는 23편(68.8%), 양한방 간호중재를 모두 이용한 경우는 3편(9.4%)로 나타났다. 양방 간호중재를 이용한 연구의 다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연구였는데(54.5%), 이는 타 간호학회지의 간호중재 분석에서 교육 중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일치하며(Kim et al., 2012; Park, Lee, Kim, & Cho, 2008), 여성건강간호학회지 분석 결과 해마다 지속적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시도되는 것과도 상응하는 결과이다(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의 교육 중재로는 소책자 정보 제공 교육, 신장 이식환자 개별교육, 통증 자가 조절기 관리교육, 항암화학요법 개별교육, 질환별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프로그램 중재로는 고등학생 금연건강 프로그램, 요양시설 노인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그램, 간호대학생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 간호대학생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선천성 대사 이상 어머니를 위한 인터넷 중재 프로그램, 통합관리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교육 및 프로그램은 병원,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에서 다양한 집단의 교육대상자에게 적용하였으며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도 다양하였다. 이는 간호의 교육 및 정보적 영역의 요구도가 중요시됨에 따라(Jeong & Kwon, 2008), 동서간호학회지의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연구도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간호 중재 중에는 내관지압이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42.9%), 단전호흡, 이압요법, 한방차 음용, 경락마사지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동서간호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와 같이(Shin et al., 2008) 한방 간호 관련 중재가 반복연구 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방간호 관련 중

재를 각각 다른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토콜의 제공과 중재 결과의 비교 등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방 관련 간호중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밝히고자 함을 의미하며 생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한방관련 간호중재가 효과적인 것임을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방 간호중재를 적용한 대상자는 부인암환자, 폐암환자, 노인환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방간호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Lee, Cho, Kang, & Shin, 2003; Lee & Kim, 2010)와 같이 한방 간호 중재가 다양한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간호현상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방간호에 대한 연구 흐름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동서간호학연구지를 분석한 연구(Shin et al., 2008)에서 한방간호연구와 양방간호연구로 분류하였을 때, 한방 간호연구가 42.9%로 양방간호연구보다 더 많은 것에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한방간호중재연구가 21.9% 양방 간호중재연구는 68.8%로 나타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연구 윤리에 대해 강조하는 연구 환경으로 연구자들은 까다로운 기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Kim & Kim, 2014)에 비추어 볼 때, 한방 간호 중재연구의 대부분이 대상자에게 직접 중재를 제공하는 연구로, 이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 승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방과 한방 중재를 같이 사용한 연구는 1편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양방 및 한방 실험중재 연구는 한방 간호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본 학회지가 동서간호학회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양방 및 한방의 간호중재를 적용하고, 이를 다양하게 접목시킨 논문이 투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서간호학적 측면의 탐구 노력은 우리 문화에 부합되는 한국적 간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가 진행된 환경은 병원이 46.9%로 가장 많았고, 학교가 26%, 지역사회 기관이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수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병원이라고 한 논문의 분석 결과와(Jang et al., 2013; Park et al., 2008) 일치한다. 또한, 병원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간호의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의 기본적인 바탕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논문에 제시된 양방간호와 관련된 주요어를 간호학의 네 가지 메타패러다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강 영역에 포함되는 주요어가 189개(57.5%)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 인간, 환경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간호학회지 분석에서 건강, 인간, 간호, 환경의 순으로 건강영역에 포함되는 주요어가 48.9%로 가장 많았던 연구(Park et al., 2008)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한방 관련 주요어는 한방연구동향의 연구(Lee et al., 2003)에 따라

기, 한방간호, 보완/대체요법, 양생, 질병의 한방적 관리, 전통적 건강 관리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기는 한의학의 기초이론으로 기에 대한 문헌연구가 한방간호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라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지만, 동서간호학회지 분석결과에서는 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균형 잡힌 한방간호의 발전을 위해 한방간호 연구분야의 개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간호와 관련된 주요어들의 사용을 살펴보면, Nei-Guan acupuncture과 같이 고유의 이름으로 주요어가 사용되는 것도 있었던 반면, '양생'이 Health promotion으로, '단전호흡'은 Breathing exercise으로 표기되어 일부의 주요어는 양방관련 주요어와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까지 양방간호와 한방간호의 영역은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있고, 특히 보완/대체요법과 한방간호가 혼용되고 있으며, 대체요법의 유형에는 한방간호의 내용과 민간요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Lee et al., 2003) 한방간호와 관련된 개념정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나아가 한방간호와 관련된 주요어들의 정립과, 한방 관련 MeSH 주요어를 등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영역별 주요어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어의 빈도는 Depression과 Nurses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Stress, Elderly, Nursing student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연구의 경향분석에서 '우울'이 가장 많이 이용된 변수로 나타난 선행연구들(Jeong et al., 2005; Roh,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Elderly'의 주요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본간호학회지나(Chung, Sohng, & Kim, 2008) 대한간호학회지(jeong et al., 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Jeong, Ahn & Cho, 2005)와 일관된다.

동서간호학회지의 게재 논문의 주요어를 Pubmed의 MeSH와 비교하여 일치도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사용된 키워드 중 62.8%(216개)의 키워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Jeong, Ahn, & Cho, 2005) 주요어와 MeSH와의 일치도가 51.6%로 나타난 것과 기본간호학회지의 논문 주요어와 MeSH와의 일치도가 59.8%로 나타난 것에(Chung et al., 2008) 비해 높은 일치도를 보여, 동서간호학회지는 비교적 MeSH에 등록된 주요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으로 키워드의 일치를 높이기 위해 편집보조원의 교육과 검토를 강화하고, 논문 투고 시 저자에게 MeSH용어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2009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동서간호연구지에 게재된 논문 105편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한 9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이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논문을 분석한 결과, 1997-2008년도 게재 논문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논문의 총 수가 증가되었고, 실험연구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연구비 수혜 논문의 증가와 다양한 연구대상자, 연구도구 및 다양한 중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표본 수 산정근거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는 논문과 IRB 승인을 받은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위해 과학적이고 엄격한 논문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주요어를 타 학회지와 비교하여 MeSH에 등재된 용어로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주요어의 하부구조 분석에서는 심리 및 사회학적인 영역이 대부분이었고,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은 건강관련영역이 가장 큰 범위의 연구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서간호학연구지는 국내의 영향력 있는 간호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적인 학술지로까지 도약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엄격한 윤리적인 연구 방법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질적인 연구들을 활발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한방 간호를 접목한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동서간호학연구지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한방의 통합적인 간호중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Chung, S. K., Sohng, K. Y., & Kim, K. H. (2008). Comparison of key 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with MeSH (2003-2007).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4), 558-565.
- Jang, K. S., Kim, B. N., Kim, Y. M., Kim, J. S., & Jeong, S. H. (2013).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r (2010-2012). *Journal Korean Acad Nursing Administration*, 19(5), 679-688.
- Jeong, G. H.,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7), 1420-1425.
- Jeong, H. Y., & Kwon, M. S. (2008). The effects on self-care knowledge and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for chemotherapy. *Asian Oncology Nursing*, 8(1), 8-16.
- Kim, J. S., Lim, J. Y., Kwon, I. S., Kim, T. I., Park, H. R., Ahn, H. Y., et al. (201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5-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7(2), 100-110.
- Kim, J. B., & Kim, J. S. (2014).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research ethic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41(2), 187-192.
- Kim, J. I., Lee, E. H., Kang, H. S., Oh, H. E., Lee, E. J., Jun, E. M., & Cheon, S. H.

- (2010).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by keywords and research metho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2007-200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6(3), 307-316.
- Kim, K. H., Chang, S. O., Kang, H. S., Kim, K. S., Kim, J. I., Kim, H. S., et al. (2012). Trends in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9-2011. *Journal Korean Academy Fundamentals Nursing*, 19(3), 383-391.
- Lee, H. Y., & Kim, S. Y. (201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on aromatherapy in Korea.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2), 85-95.
- Lee, H. Y., Cho, K. J., Kang, H. S., & Shin, H. S. (2003). Research trend of oriental nursing in Korea.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8(1), 27-40.
- Moon, H. J., Shin, H. S., Yang, K. M. (2000). The study of curriculums on the nursing in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5(1), 102-113.
- Park, Y. H., Lee, Y. W., Kim, O. S., & Cho, M. O. (2008).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1), 176-186.
- Polit, D. F., & Hungler, B. P. (1987).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Roh, K. H. (2011). Review of Korean research on nursing interventions for elders. *Korean Gerontol Nursing*, 13(1), 1-10.
- Shin, H. S., Kim, W. O., Park, S. H., Shin, H. S., Lee, J. A., Hwang, J. I. (2008). Trend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97-2008.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2), 81-86.
-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139-149.
- Sohng, K. Y., Kim, J. I., Choi, D. W., Kim, A. K., Chaung, S. K., Kim, K. H., et al. (2008).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based on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from 2001 to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Research*, 12(3), 325-336.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Research*, 37(6), 1013-1019.
- Webb, C. (2003). An analysis of recent publications in JCN: Source, methods and topic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23, 931-934.
- Yee, K. E., Park, Y. R., Cho, K. J., Park, M. J. (2011).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based on analysis of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from 1999 to 2010.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3(2), 81-93.